

장애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

- 박 동섭
- littleegan@gmail.com

장애란 무엇인가?

-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에서 개인이 소유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환원해서 설명해왔던 장애 즉, 말을 하지 못하거나 볼 수 없다거나 하는 사실은 실은 시각장애인 혹은 언어장애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Vygotsky).
- 말을 바꾸면盲(혹은聾)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사태이지 결코 병적인 사태가 아니다(Vygotsky).
- 결국 사회를 배제해버리면 장애의 장애성은 사라지게 된다.

장애란 무엇인가?

- 즉, 장애를 갖는 것, 장애를 경험하는 것의 기원(Origin)은 다름아닌 사회에 있는 것이다.
- 장애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경험이다.

장애란 무엇인가?

- 정상적인 사람은 빛의 결여로부터 상상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을 어둠 속의 존재 혹은 어둠 속의 세계라고 묘사한다.
- 그러나 맹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느끼는 어둠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 즉 정상인이 느끼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pair와는 다른 방식으로 맹인은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란 무엇인가?

- If a blind Man should affirm,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Light, and an Owl no such thing as Darkness, it would be hard to say, which is the verier Owl of the two. Samuel Butler, *Characters*
- 만일 장님이 빛이란 건 없다, 올빼미가 어둠이란 건 없다 라고 말한다면, 둘 중 누가 옳은 건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여기서 잠깐
- verier 는 very 의 비교급. very 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음. true 의 의미.
- 마지막 부분 which is the verier Owl of the two 은
- which is the verier (one) of the two 로 쓰는 게 정석.
- 글쓴 저자가 one 대신에 a blind Man, 이나 Owl 둘 중의 하나를 쓴 것일 뿐. 수사목적상.

장애란 무엇인가?

- 따라서 맹이 맹이 되는 것, 혹은 맹인의 맹인성은 맹인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정상인의 그러한 방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말을 바꾸면 맹인의 맹인성은 생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서 발생(Emergent)하는 것이다.
- 그것은 이질적인 양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에서 발생해서 그 장에 묻혀 있다(embedded).
- 그 의미에서 맹인의 맹인성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구성이자, 사회적 달성인 것이다.

능력의 관계론

- [Country of the blind] Wells, 1979)
-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나라에 우연히 도착한 남자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 [볼 수 있는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지 없이 깨어져 버렸다.

능력의 관계론

- 이 나라에서는 도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시각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따라서 그 국민들은 시각을 갖지 않는 것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능력의 관계론

- 원래 그 국민들은 [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의 우월성(dominance)을 납득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는 왕은 커녕, 단순한 Stranger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능력의 관계론

- 그리고 결국에는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감각이상을 환부의 외과적 절개에 의해서 치료를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였다.

능력의 관계론

- 이 남자의 불행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시각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한 시각을 갖지 않은 그들이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구, 제도, 언어, 인간관계 등)을 조직화하고,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능력의 관계론

- 즉 불행, 유능함 이런 것 등은 개인의 속성으로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Emergent) 것이다.
-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남자의 [보는 능력]은 발휘되어야 하는 장소를 잃어 버리고, 역으로 촉각과 후각 등의 능력의 결여가 나타나게(Emergent) 된 것이다.
- 말을 바꾸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게 된 것이다.

능력의 관계론

- 이 남자는 이 나라에 오기 전에도 온 후에도 생리학적 시점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각기관을 갖고 있었지만(여기서 정상이라는 것의 개념도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생리학적 사실은 그 남자가[보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으로 표시(display)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능력의 관계론

- 역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세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시각에 장애를 가진 자로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의 관계론

-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것이 문제가 되도록 이전부터 우리의 환경을 계속해서 디자인 해왔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능력(혹은 그 결여)은 그것이 능력(혹은 그 결여)로서 다루어지게 되는 환경의 조직화와 독립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사고 실험

불협화음론자 비고츠키:비고츠키를 만나기 위한 준비운동 중에서

- 우리가 사고실험을 위해 일부러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혹은 사고 등으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무능력한 자’ 혹은 ‘장애를 가진 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Wells의 소설 주인공인 눈에즈가 불시착한 ‘시각장애인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도구, 제도, 언어, 인간관계 등)이 디자인되어 있었다.

사고 실험

불협화음론자 비고츠키:비고츠키를 만나기 위한 준비운동 중에서

- 여기서 잠깐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하자. 예컨대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 지금 눈을 감은 상태로 집 대문 바깥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대문 바깥으로
- 나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평소에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방에서
- 대문까지의 이동조차도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실험

불협화음론자 비고츠키:비고츠키를 만나기 위한 준비운동 중에서

-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것’은 결코 장애를 가진 것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 따라서 그러한 현상(psychological realm)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면 ‘장애’는 더 이상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경(도구, 제도, 언어, 인간관계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가시화되고 지각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 즉 장애는 도구, 제도, 언어, 타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도드라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사고 실험

불협화음론자 비고츠키:비고츠키를 만나기
위한 준비운동 중에서

-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의 나라'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눈에즈가 불시착한 외부세계와
단절된(여기서 단절이라는 말도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하지만) 그
곳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